

수중생물 전문가 '아쿠아리스트'

아쿠아플라넷63 아쿠아리스트 변철희

마음이 답답할 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원하는 때에 바다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아쿠아리움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도심 한 가운데에서도 바다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심 속의 작은 바다,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스트는 바로 이 작은 바다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아쿠아리스트를 수족관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며 한가롭게 일하는 직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스트는 수족관을 바다와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루 종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일은?

생물과 수족관 관리는 기본, 방문객 위한 행사도 기획해야

- 수족관의 수질 관리 장치 등 점검
- 수중생물들 먹이 챙기고 건강 관리까지
- 아름다운 수족관 연출하고
-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도 기획!

아쿠아리스트는 수족관을 수중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수중생물의 먹이나 배설물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수족관 외부로 배출시키는 여과장치나,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살균장치 등 수족관의 수질을 관리하는 장치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지요. 수중생물의 먹이를 규칙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빼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다치거나 아픈 생물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엔 직접 치료하기도 하지요. 수족관에 산호와 바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수족관을 바다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몫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족관을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바다와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한 후에는, 아쿠아리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황홀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수족관을 연출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일입니다. 또 방문객들이 특별한 기억을 가져갈 수 있는 상어먹이주기나 수중마술쇼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도 합니다.

▼ **아쿠아리스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물에 대한 공포감 없어야, 무엇보다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

매일 물에 들어가는 직업

▶ 물에 대한 공포감 없어야!

▶ 강한 체력도 필수!

무엇보다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

약육강식의 법칙 적용되는 수족관

▶ 수중생물들 늘 관찰하는 관찰력 중요!

아쿠아리스트는 생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수족관을 청소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 씩 잠수하여 수족관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매일 물속에서 일하는 아쿠아리스트가 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게다가 잠수는 엄청난 체력 소모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변철희 아쿠아리스트 또한 “매일 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쿠아리스트에게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강인한 체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쿠아리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중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 수중장비를 다루는 뛰어난 기술? 변철희 아쿠아리스트는 “무엇보다 아쿠아리스트에게 필요한 자질은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일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체력적·정신적 소모 또한 큼니다. 매일 물속에서 수중생물과 생활하는 아쿠아리스트가 수중생물에 대한 거부감마

저 가지고 있다면 즐겁게 일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므로 생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기본입니다.

한 가지 더, 아쿠아리스트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조에서 수중생물들과 생활할 때 반드시 생물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좁은 수조도 엄연히 생물들이 사는 곳이기에 때문에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 개체가 힘없고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쿠아리스트는 생물들을 늘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세심한 관찰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수질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전공 유리, 해양 관련 지식 도움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수질이나 환경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수산학, 양식업, 해양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다이빙과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무엇보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아쿠아리스트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꼭 유념하세요.

▼ **아쿠아리스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물속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인어, 아쿠아리스트도 그럴까? NO!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생물에게 공격받는 등 위험한 일도 많아

▶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아쿠아리스트는 물속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인어처럼 수족관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노니는 직업이라는 오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수족관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돌보는 바다생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지요. 아픈 동물이 생기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아쿠아리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일과 아쿠아리스트에게 필요한 자질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